푸리에의 팔랑스테르를 통해 본 노동과 열정, 정치와 문화의 관계*

신지은**

〈차 례〉

1. 서론
2. 푸리에, 17~18세기 부르주아 사상과의 단절
3. 노동과 정치에서 열정
4. 에로스적 인간(homo eroticus)
5. 결론

【국문초록】

샤를 푸리에는 열정 인력이라는 개념으로 근대 문명을 비판하고 유토피아 사회를 구상했다. 그러나 인간의 열정을 해방시킴으로써 자유롭고 즐거운 노동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던 푸리에의 주장은, 인간의 이성적 활동에서 인간의 자연적 욕망과 열정을 분절시킴으로써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근대성을 극복하는데 일부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실제로 그의 사상은 감정과 열정의 해방을

*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주장하는 여러 후속 연구들과 이상사회에 대한 실험들을 낳았고 지금까지도 그의 사상의 맥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탈근대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들은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근대의 도덕정치의 틀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다.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이를 공동으로 배치하고 공유하려는 현대의 여러 노력들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푸리에의 기획을 재조명해야 한다. 이 연구는 노동과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살펴보면서 푸리에의 주장이 갖는 현재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주제어: 푸리에, 열정 인력, 노동, 팔랑스테르, 유토피아

1. 서론

오웬, 생시몽, 푸르동 등과 함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로 거론되는 샤를 푸리에는 열정 인력(情念引力, l'attraction passionnée)이라는 개념으로 근대 문명을 비판하고, 유토피아 사회를 구상했다. 흔히 푸리에의 사상은 사회주의 역사 속에서 프롤레타리아를 사회변혁의 주체로 삼지 못했다는 비판 아래 유토피아적인 실험 정도로만 기억될 뿐이다. 게다가 푸리에는 그가 사용한 풍자적인 은유와 과장, 어법을 무시한 문체와 신비적인 색채, 독특한 신조어 등으로 공상적이고 신비적이며 심지어는 정신 이상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푸리에는 인간의 욕구와 열정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향유되는 상태를 '즐겁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이런 즐거운 사회가 바로 이상적인 사회라고 간주했다. 인간의 열정을 해방시킴으로써 자유롭고 즐거운 노동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던 푸리에의 주장은, 인간

의 이성적 활동에서 인간의 자연적 욕망과 열정을 분절시킴으로써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근대성을 극복하는데 일부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실제로 그의 사상은 감정과 열정의 해방을 주장하는 여러 후속 연구들과 현실에서의 실험들을 낳았고 지금까지도 그의 사상의 맥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탈근대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들은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근대의 도덕정치의 틀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다.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이를 공동으로 배치하고 공유하려는 현대의 여러 노력들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푸리에의 기획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기존의 푸리에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 특히 노동이 놀이가 될 수 있다는 푸리에의 주장과 그와 연관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은 푸리에의 문헌과 주장에 대한 검토 그 자체는 아니다. 푸리에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이 연구는 노동과 정치에 대한 현대적 이해에서 열정과 놀이, 즐거움에 대한 고려가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노동과 정치에 관한 수많은 현대의 연구들에서 즐거움이나 열정, 행복 등의 개념은 거의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노동에 대한 푸리에의 주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소외에 관한 마르크스의 논의와 프로이트의 에로스 개념을 결합시켜 비판이론을 개진한 마르쿠제, 마르쿠제의 정치적 에로스 개념을 차용하여 정치·사회적 동학에서 '에로스 효과(eros effect)'에 주목한 조지 카치아피카스, 사회의 토대가 합리적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미셸 마페졸리,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유대감과 집합적 열광, 정서적 에너지의 중요성을 밝힌 랜들 콜린스 등의 논의를 검토할 것이

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노동과 정치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확장시키고 문화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푸리에, 17~18세기 부르주아 사상과의 단절

1) 프랑스혁명에 대한 푸리에의 평가

푸리에는 부르주아적 자유주의 사상과의 단절을 주장했다. 부르주아적 자유주의 사상은 진보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17세기 수학과 물리학의 발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인주의의 토대를 정립시켰다. 당시 세계에 대한 철학적, 물리적 이해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서로 평등한 원자들의 집합을 기초로 한다. 당시의 이러한 과학적 이해 속에서 홉스는 경험론이나 실용주의, 유물론 등을 격찬했다. 제레미 벤담 역시 개인의 이득에 대한 합리적 계산이 불가능한 모든 것을 우둔한 것으로 간주했다. 유사한 방식으로 존 로크는 사유재산제도를 '자연권'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거부했다.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고' 인류의 진보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푸리에는 이들이 신뢰했던 문명의 탁월성과 영속성, 필요성을 의심하면서 전혀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1)]

푸리에가 살았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의 총체적인 변혁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절대 왕정을 기반으로 한 기존 권력층과 프랑스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한 부르주아지의 투쟁으로 이는 절대왕정 대신 입헌군주제를 성립시킴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혁명이라 평가된다. 하지만 사회적 혁명이라는 측면에

1) Lepic, "Charles Fourier", *Culture & Révolution,* 2003.

서 볼 때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대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여러 권리에 대한 선언을 통해 만인의 법적 평등, 노동·언론·양심의 자유를 인정했지만, 사실 대혁명으로 시민이 쟁취한 자유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대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신분제가 남아 있었고, 평등이 없는 자유는 반쪽짜리에 불과했다.[1)]

또한 여성과 관련해 볼 때도 대혁명은 실패라 할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은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사실이다. 혁명 정부는 각종 여성 관련법을 제정해 여성을 앙시앵 레짐의 가부장적 억압과 권위로부터 '법률적으로' 해방시켰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법률들은 수정되거나 폐지되었다. 나폴레옹 민법전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오히려 앙시앵 레짐 하에서보다 더 열등한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여성의 나약함을 근거로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추방되고 시민시회 내에서 종속적 위치로 추락했다. 사회적인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유와 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대혁명을 전후한 시기의 상업 발전으로 국가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한 부르주아지는 물질적 안정을 누린 반면 농민과 노동자 계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한 부르주아지 내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새로운 부르주아들은 투기를 일삼고 부패한 정치가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부르주아가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 동안, 수많은 부르주아들이 파멸했고, 노동자 계급과 도시 빈민은 상업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되었다. 부유한 계급과 빈곤한 계급이 고착화되어 새로운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2)]

---

1) 푸리에, 변기찬 옮김,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들어가는 말, p. 7.
2) 같은 책, pp. 8-9.

2) 열정, 열정 계열

푸리에가 프랑스 혁명을 실패로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랑스 혁명이 '열정의 문제'를 중심 요소로 다루지 못한 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계몽주의자들 및 혁명 세력들은 이성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의 문제를 해석하고 변화시키고자 했지만, 푸리에는 이성의 저편에 감정의 요소를 통해 보고자 했다.

푸리에는 사랑, 감정, 열정을 자기 분석의 중심 요소로 간주했다. 이는 자연과 역사/문화/문명을 사유하기 위한 시도이며, 또한 이들 사이에 감정의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일종의 종합을 도출해 내기 위한 시도이다. 이는 이성과 비교했을 때 열정이 불충분한 개념이라고 파악했던 데카르트나 한 개인의 욕구가 다른 이의 욕구와 대립한다고 보았던 홉스의 이해를 부정하는 것이다. 푸리가 보기에, 열정과 욕망의 충족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인 것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3] 이처럼 푸리에의 열정은 열정 계열(série passionnée)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푸리에는 『산업적, 협동사회적 신세계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étaire』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사상가도 인식하지 못했던 본질적인 실재, 즉 인간의 열정에 대해 다루겠다는 야심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열정은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인간의 오감의 만족과 사치를 통한 쾌락이다. 두 번째는 그룹과 계열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사회성과 관련된 것으로 우정, 사랑, 야망, 가족애를 통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 목적은 열정들 간의 역학 혹은 그룹들의 계열과 관

3) 박주원, 「19세기 유토피아 사상의 정치철학적 토대」, 『시민사회와 NGO』 11(2),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2013, p. 195.

련된 것이다. 즉 열정들을 분배하는 역학을 통해 집단들 간에 조화 있는 조화와 통일성을 확립하고자 한다.[4]

푸리에는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열정들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열정들이 각각 독립된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접한 열정과의 관련과 대조 속에서만 충족되는 연합적인 것으로 보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처럼 열정들이 연합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열정의 역학이 하는 역할을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열정의 역학과 관련된 열정에는, 교체하고 대조적인 변덕 열정(la Papillonne), 음모를 꾸미고 대립하는 신비철학적 열정(la Cabaliste), 열정들을 서로 맞물리게 하는 합성된 열정(la Composite)이 있다.

첫째, 변덕 열정은 감각과 정신을 자극하는 새로운 것들을 위해 필요하다. 사람은 노동이든 쾌락이든 한 가지를 지나치게 오래 할 경우 싫증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싫증을 이성을 통해 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팔랑스테르에서는 두 시간 간격으로 다양한 일에 연속적으로 종사하게 된다. 변덕 열정은 사람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쾌락이 싫증으로 바뀌기 전에 새로운 쾌락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열정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물론 이 열정은 현재의 쾌락을 남용하는 것도 예방한다. 이상적인 조화는 극단으로 치우친 절제나 남용이 아닌 균형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비철학적 열정은 음모의 열정이다. 이것은 영광을 둘러싸고 집단들 간에 질투와 경쟁을 일으킨다. 더 나은 성과와 명예를 위해 다른 집단들과 경쟁하면서, 각 집단은 내부적으로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고, 외부적으로는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높은 성취와 성과를 얻게 된다.[5] 이처럼 푸리에는 이

4) Fourier,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étaire*(1), Paris, Edition Flammarion, Collection Nouvelle bibliothèque romantique, 1973, pp. 63-67.

5) *ibid.,* pp. 65-67.

상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조화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생산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조화와 경쟁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여기서의 경쟁은 일종의 놀이를 위한 집단의식을 부추기는 것으로, 사람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노동에 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셋째, 합성된 열정은 감각과 정신에서 야기되는 쾌락들을 혼합하고 모든 열정을 융합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이 열정에 기초한 노동은 피곤함이나 지루함이 아닌 매력적이고 즐거운 활동으로 나타난다. 앞선 아홉 가지 열정이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라면 분배적 열정들은 감각적 열정과 정서적 열정들을 조화시키고 팔랑스테르(Phalantère)[6]를 구성하고, 여기서 인간들은 자유롭고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노동하게 될 것이다. 푸리에가 주목하는 열정에는 개인적인 호사를 추구하는 것과 또한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각 열정이 추구하는 쾌락이 조절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푸리에의 열정 이해는 오감의 사회성, 욕망의 사회성을 발견하게 된다.[7]

푸리에는 19세기 프랑스 사회를 지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혹은 생존이라는 현실을 위해, 하나의 열정이 다른 열정을 억압하는 상태로 파악했다. 도덕과 이성은 열정을 억압하고 것을 정당화하

---

6) 푸리에는 인간의 열정에 따른 노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에 적당한 일정 규모(남녀 각각 810명 씩, 총 1,620명)의 연합체를 구상했고 그것을 '팔랑쥬(phalange)'라 불렀다. 그리고 공동주거, 생활 문화 공동체를 가리킬 때는 팔랑쥬(phalange)와 수도원을 뜻하는 monastère를 합쳐서 만든 팔랑스테르(Phalantèr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팔랑스테르는 즐거운 노동이 실현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여성이 성적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여성의 성과 사랑에 관해서는 푸리에의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2007); Massari, "Fourier : Eros et Civilisation", *Cahiers Charles Fourier* n° 14, Association d'études fouriéristes, 2003 참조.

7) 변기찬,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의 정념 - 조화 혹은 사회성을 향한 욕망」, 『석당논집』 49집, 동아대학교부절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1, p. 253.

지만 그것은 폭력에 불과하다. 이성은 빈곤, 노동 착취, 만연한 사기 협잡, 도적질 등 수많은 불행을 만들어 낼 뿐이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각종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 혹은 특정 계급이 가지고 있는 열정 중에서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팽창했기 때문이다. 푸리에는 인간이 지닌 열정들을 억압하거나 그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열정들이 통일성을 갖추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푸리에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점은 개인적 성취와 집단 구성원 내부의 결속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경쟁이나 부조화 역시 필수적인 열정으로 본다는 점이다. 푸리에의 이상 사회는 단순히 협동과 조화만을 강조하는 도덕적 공동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쟁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방임적 사회도 아니다.[8] 푸리에는 팔랑쥬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5만 개의 부조화가 터져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우애와 일치, 조화만을 강조하는 도덕적 유토피아주의자들과 스스로를 구별했다.[9]

그러나 분명 푸리에의 협동 사회는 무질서한 분열과 이기적 가족주의가 아닌, 연합의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푸리에의 사유를 자신의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은 프랑스 철학자 르네 셰레(R. Schérer)는 이 메커니즘을 '사회 생태학(écologie sociale)'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10] 이는 각 노동자들은 자신의 열정과 욕구,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동 분배 시스템 속에 배치되고, 또한 부의 생산의 목적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갖는다. 신비철학적 열정의 작용으로 푸리에의 이상 사회 속에는 분명 부

8) 박주원, 「19세기 유토피아 사상의 정치철학적 토대」, p. 199.

9) Fourier,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étaire*(1), p. 52.

10) 푸리에,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외』, 43-44쪽; Schérer, *L'écosophie de Charles Fourier*, Anthropologie, 2001, pp. 5-8, 16; "De Fourier à Pasolini. L'amour ralliant", *Cahiers Charles Fourier* n° 14, Association d'études fouriéristes, 2003, p. 79.

자와 빈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곳의 빈자들은 문명사회의 부자들 보다 더 큰 쾌락을 가지며 어디에서나 보편적 환대를 맛본다. 인류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하모니'[11], 즉 조합과 연합의 질서로 이루어진 하모니 시대가 오면 빈자는 모든 곳에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여행과 구경거리, 산업과 사랑 등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문명사회의 인간이 겪는 욕망과 사랑의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발명될 것이다. 따라서 푸리에의 생태학은 자연적 생태학과 사회 생태학을 넘어, 정신의 생태학(écologie mentale)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인간은 재창조된 사회적, 우주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3. 노동과 정치에서 열정

1) 노동 소외와 그 극복

이러한 푸리에의 유토피아적 사회와 노동에 대한 주장을 '과학적이지 않은' 공상에 불과한 것처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푸리에가 제시한 유토피아가 근대 사회의 중심적인 인간 행위로 등장한

11) 『보편적 통일성 이론Théorie de l'Unité universelle』에서 푸리에는 인류의 단계별 발전에 대해 쓰고 있다. 인류는 상승과 하강을 거치며 발전해 가는데, 즉 에덴, 야만, 가부장제(소규모 산업), 미개(중규모 산업), 문명(대규모 산업), 보증주의(반(半)협동주의), 연합주의 시대를 거쳐 마침내 하모니(복합협동사회) 시대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뒤로 갈수록 인간은 자유롭고 성숙한 존재가 되며, 고도로 조직화 될 것이다. 푸리에는 하모니 시대에 인간 수명은 약 150세가 될 것이고, 이는 3천5백여 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기후는 온화해지고 우주 만물이 통일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은 여기에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Fourier, *Théorie de l'unité universelle,* Tome1, Paris, Les Presses du réel, 2001).

자본주의적 노동 활동에 대한 근본적 비판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과, 그 이상적 공동체의 구성원리가 국가나 정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기획과 조직화에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의 주장 역시 사회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12]

마르크스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 주는 것이 노동이라고 보았다. 즉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사회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동물 역시 일을 하지만, 의식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노동은 동물의 일과 구별된다. 노동자는 자연물의 형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목적을 자연물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에서 의식을 강조하면서 동물의 노동과 구별하지만, 그렇다고 의식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잠재력을 논하면서 의식과 함께 욕구, 본성, 활동, 사회성, 노동을 언급했다. 인간의 의식이 노동을 통해 물질화되었을 때 그 노동은 인류 사회와 문명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 노동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경험한다는 데 있다. 노동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며,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가장 동물적인 기능들, 먹고 마시고 생식하고 기껏해야 그의 거주와 의복에서만 자발적으로 활동한다고 느끼고, 그의 가장 인간적인 기능들에서는 자신을 동물로 느낀다."[13]

이런 상태를 마르크스는 '소외'라고 표현한다. 소외란 노동이 노동자에게 낯설고 억압적인 외부의 힘으로 느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노동의 결과물도 내 것이 아니고, 노동을 하는 활동 자체도 내 것이 아닌 상태이다. 노동소외는 지배계급이 노동과정을 통제

12) 박주원, 「19세기 유토피아 사상의 정치철학적 토대」, pp. 210-211.
13) 마르크스, 강유원 옮김, 『경제학-철학 수고』, 이론과 실천, 2006, p. 90.

하고 노동의 결과물을 수취하는 계급 사회의 산물이다. 노동과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분업을 계급의 바탕으로 보았다. 사회적 분업, 특히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와 더불어 계급 사회가 시작된다. 근대 자본주의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분업에서 더 나아가 노동과정의 분업도 강화되면서 노동자의 소외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에 따라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적 자본과 계급이 사라진다면 노동 소외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노동은 기피되었다. 소외의 극복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노동 그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탈노동)이고, 또 다른 방향은 노동을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노동의 인간화)이 있다.[14]

노동의 최소화, 즉 탈노동을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에 의해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낙관적인 입장에서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이 미숙련 노동을 없애는 대신 지적이고 전문적인 노동을 활성화시키며, 자동화로 인해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신산업이 발달하여 노동력을 흡수할 것이라 주장한다. 물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은 고용을 축소하고 임시, 하청, 파견 등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면, 일자리 없는 시대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의 기회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회적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노동사회'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노동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실현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은 생계의 어려움 뿐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감의 상실을 가져온다. 그러나 탈노동주의자들은 노동은 인간의 여러 활동들 중 하나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삶을 노동이

14) 장귀연, 「대안적 노동 원리 –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을 통한 해방」, 『마르크스주의 연구』 12(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조직할 것을 강조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에서 기쁨을 누리지도, 자기실현을 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노동 외 시간에 정서적 유대감이나 안정감을 강화하는 관계적 활동, 사회적 연대를 제공하는 시민사회적 활동, 개인의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즐거움을 느낀다. 물론 이런 전환이 가능하려면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기본소득의 보장과 같은 사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탈노동주의는 노동 개념을 대단히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적 임금 노동만을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본주의를 벗어난 사회를 상정하더라도 노동은 여전히 자유와 대비되는 의무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간주된다. 그러나 프리 소프트웨어나 창작물 공유와 같이 개인이 자기 창조성을 발휘하며 즐겁게 하는 활동이 사회적 생산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탈노동주의는 노동을 최소화하는 것만 주목하고 있지 노동 그 자체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이 의무가 되더라도 노동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더 즐겁고 자율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노동의 인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노동의 인간화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장인적 생산과 노동자들의 지식과 창의적 사고의 발휘가 가능해지면 자연스레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의 인간화에서는 무엇보다 소외의 주범이 되는 분업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폭넓은 숙련을 가진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민주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일한다면 소외는 극복될 것이다.[15] 그러나 현실 속에서 노동의 인간화는 자본이 허

15) 같은 글, p. 60.

용하는 한계 내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 팀 작업이나 다기능화, 교육과 숙련 형성 등이 오히려 노동 강도 강화에 이용되었던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물론,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유럽의 노동의 인간화 프로젝트도 자본과 타협해야 했기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한계는, 작업현장의 노동과정만 문제시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분배 체계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16]

2) 사회적 인간의 욕망, 욕망의 사회화

탈노동과 노동의 인간화를 둘러싼 논의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논의들이 다루는 핵심적인 쟁점들은 이미 푸리에에게서도 발견된다. 푸리에는 노동, 좀 더 정확히는 '즐거운 노동'을 강조했기 때문에, 탈노동 보다는 노동의 인간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탈노동 주장과 유사한 논의들도 발견된다.

마르크스는 푸리에가 노동을 단순히 놀이나 오락이 될 수 있다고 보았던 점을 비판했다. 즐거운 노동이라는 푸리에의 이론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일을 선택하고 나아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은 모순이며 또 하나의 억압된 노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엥겔스 역시 공산주의 운동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은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중간계급적 성격과 구별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푸리에의 자유롭고 즐거운 노동사회에 대한 통찰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그의 기획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의미도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역할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다.[17]

---

16) 같은 글, p. 61.

17) 박주원, 「푸리에의 '팔랑쥬', 즐거운 노동사회의 유토피아」, 『이상국가론』,

그러나 푸리에의 사상을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푸리에가 강조했던 인간 개개인의 열정과 노동의 사회적 배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팔랑스테르에서 노동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적이다. 푸리에의 유토피아는 '조화로운 협력에 입각한 자발적 사회', '자유롭고 매혹적인 노동 공동체'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세계는 푸리에가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파악했던 '열정 인력'을 토대로 형성된다. 푸리에는 열정 인력의 법칙을 통해 인간과 사회 집단에 질서를 부여하려 했고, 이를 통해 세계는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푸리에가 구상했던 유토피아는 '인간이 지닌 다양한 열정들의 자발적인 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곳이다. 사적 소유제도의 철폐로서 소외된 노동과 불평등한 계급 사회를 극복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와 달리, 푸리에는 '매력적인 노동(le travail attrayant)', '즐거운 노동', '놀이로서의 노동' 등의 인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18]

푸리에는 탈노동 주장이 간과했던, 노동이 사회적 필요에 의한 의무가 되더라도 노동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더 즐겁고 자율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푸리에는 노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열정에 따라 영위될 때는 인간 본성과 욕구를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푸리에가 보기에 근대의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노동의 결과인 소유의 불평등 혹은 노동 분업이 가져오는 소외 문제 그 자체보다, 노동이 인간의 열정을 왜곡한다는 데 있다. 근대적 노동은 인간의 열정에 따른 즐거운 노동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정의 해방'을 통해 근대적 노동에서 해방되고 노동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푸리

장동진 외 지음, 한국정치학회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p. 218.

18) 같은 글, pp. 211, 212.

에는 전체적주의적 사유를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유토피아적 노동 공동체를 위해 각 사람들의 열정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열정에 따라 노동이 배치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보았다.[19]

탈노동 논의는 임금 노동과 자유로운 활동을 구분하며 후자를 강조하지만, 푸리에의 노동 개념 속에는 이 둘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푸리에의 매력적인 노동은 노동이자 동시에 놀이이며, 인간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안정감을 강화하는 관계적 활동이고, 개인의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푸리에는 인간은 언제나 이윤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화합과 부유함, 풍요로움과 쾌락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노동 공동체를 가정했다.[20] 푸리에의 이상 사회에서는 재산권이 폐지되지 않았고, 절대적인 평등과 평준화를 지향하지도 않았다. 푸리에는 일종의 '비례적 평등'을 옹호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 자본, 재능의 공헌 정도에 따라 5:4:3의 비율로 배당이 할당되었다.[21]

또한 탈노동을 주장하는 이들이 강조했던 기본소득 보장과 유사하게, 팔랑스테르에서는 '최저 수입제'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작업을 선택할 수 있다. 팔랑스테르에서 빈자는 충분히 풍요로운 배당금을 최저 수입으로 보장받을 것이므로 훌륭한 식사 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계급 간에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우정이 지배하며, 유쾌함과 웰빙, 성실함에 의해 계급 간의 조화는 어렵지 않다.[22] 이

---

19) 같은 글, p. 220.

20) 푸리에,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외』, pp. 33-38.

21) Fourier,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étaire*(1), p. 153.

22) Fourier,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étaire*(1), p. 78; Fourier,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étaire*(2), pp. 37-42. 현재 프랑스에서 무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최저소득보조금(RMI: Revenu minimum d'insertion. 최저 생계비와 소득 간의 차액 지급)을 제도화하기 이전에 푸리에의 제

곳에서는 평등이 공포되거나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마술적이라 할 만한 열정적 인력의 계산으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작동하는 것이다. 벤야민은 푸리에의 이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 그 속에서 "윤리가 아무 할 것이 없는 세계", "열정들이 서로 맞물려 기계처럼 돌아가는" 세계, 미분화된 무한한 조합과 결합들의 질서가 관찰되는 세계이다.[23] 이성적 계산과 조절이 아니라 경험적인 '정서적' 계산과 조절에 따른 균형과 조화의 세계. 이런 푸리에의 이상적 세계 속에는 노동과 탈노동, 노동과 노동 외의 자유로운 활동, 개인의 사적 이익과 공동체적 관심을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4. 에로스적 인간(homo eroticus)

마르쿠제는 경직되고 교조화된 사회주의에 회의하던 중, 인간론 및 소외론 등에 관한 마르크스의 중요한 사상이 담겨 있는 『경제학-철학 수고』를 통해 새로운 휴머니즘적 마르크스주의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서구 자본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인간존재의 위기로 간주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쿠제는 사회혁명은 사회구조와 더불어 인간성의 변화와 같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요구한다고 보았고, 푸리에가 그 어떤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보다도 "자유가 억압 없는 승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자인 빅토르 콩시데랑(V. Considérant)은 인민에게 최저 생계비 지급을 주장했고, 푸리에에게 영감을 받은 조셉 샤를리에(J. Charlier)는 유럽에서의 최저통합수당에 대한 최초의 제안서를 작성했다(Van Parijs et Vanderborght, *L'allocation universelle,* Paris, Ed. La Découverte, 2005, p. 14).

23) Maffesoli, *Le temps des tribus,* La table ronde, 2000, p. 132; W. Benjamin, Essais, Paris, Denoël-Gonthier, 1983, p. 40; Tacussel, Charles Fourier, le jeu des passions, Paris, DDB, 2000.

것을 더 잘 밝혔다"고 평가한다.[24]

마르쿠제는 전통적인 사상사에서 산업사회의 리비도적 작업관계라는 관념이 거의 지지되지 못했고 심지어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성과 의무와 편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간본성 안에 존속하는 열정의 인력으로 유쾌한 협동이 가능해지는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했던 푸리에에게서 마르쿠제는 노동을 쾌락으로 변형시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특히 그는 '매력적인 노동'의 가능성은 무엇보다 리비도적인 힘의 해방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마르쿠제는 푸리에와 마르크스, 랭보 등에게서 발견한 진정한 사회주의의 '미학적-에로스적 측면'을 강조했다. 선진산업사회는 '총체적 지배'의 사회로 여기서는 혁명의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다고 생각했던 그가 사회변혁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68혁명을 통해서이다. "더 많이 혁명할수록 더 많이 사랑을 즐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로", "혁명은 축제다", "리얼리스트가 되어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등의 68년 5월에 등장한 슬로건들이 증명하듯 이 혁명은 기존의 정치와 혁명에 대한 이해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이상주의적 열정과 정치적 파괴력의 결합이었던 것이다.

새롭고 자발적인 연대성이 등장한 순간, 사회적 변동을 유포하고 "전염성 있게" 만드는 이와 같은 순간들은 흔히 말하는 정치에서의 소외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순간들이다.[25] 마르쿠제의 지적 영향을 받은 역사학자 카치아피카스(G. Katsiaficas)는 68혁명을 정치가 에로스화 된 순간으로 해석했다. 이 혁명의 도중에 상상력이 실용성을 대체했고, 협동과 존엄성이 경쟁과 냉담함을 대

24) 마르쿠제, 김인환 옮김, 『에로스와 문명』, 나남, 2004(2), pp. 265-266; 손철성, 『허버트 마르쿠제』, 살림, 2005, pp. 21-22.

25) 마르쿠제, 김택 옮김, 『해방론』, 울력, 2004(1), pp. 83-91.

체했으며, 자연스럽게 고된 일은 놀이가 되었으며 수동적 구경꾼이었던 대중은 자신들의 사회적 삶을 재창출하는데 적극 참여하고자 했다. 이런 대중의 움직임을 조직된 집단과 개인의 지도에 따른 결과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카치아피카스는 이를 "에로스효과의 출현, 정의와 자유라는 본능적인 인간 욕구에 대한 대다수의 자각"이 생겨날 때만 가능한 진귀한 순간이라고 본다. 에로스효과(eros effect)란 이렇게 정치 혁명이라는 공동의 역사적 상황을 공동으로 경험하면서 마치 감정이 전염되듯이, 낯선 이들 사이에 지적, 도덕적 감수성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자유롭고 동등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바로 이때 현존 상태의 구조가 파괴되고 사회의 통제 형태들이 파열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호작용 형식들이 부정되어 새로운 형식들이 창출된다. 이 새로운 아름다움은 공격적인 것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며 공격자를 막고 무력화시킨다.[26]

이런 혁명은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출현시키며, 자연이 역사가 되는 과정을 통해 구래(舊來)의 '적자생존'을 부정한다.[27] 이렇게 투쟁과 혁명이 삶이 되고 예술이 되었다. 혁명에서 사랑과 에로스의 중요성은 68혁명을 이어 80년대 스페인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도 강력하게 드러난다. 80년대 초 스페인 민주화 기간 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문화 운동 '모비다(movida)'는 젊고 새롭고 민주적인 스페인에 대한 욕망 및 문화예술 영역의 새로운 인물의 출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스페인이 프랑코의 독재에서 벗어나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뉴웨이브, 펑크 등과 같은 동시대 유럽 문화 운동을 흡수하면서 발생했다. 새로운 도시의 감성이 폭발하는 순간에 이 도시들은 열에 들뜬 모비다를 공동으로 경험한 것이

---

26) 마르쿠제, 최현 옮김, 「새로운 감수성」, 『미학과 문화』, 범우사, 1999, p. 177.
27) 카치아피카스, 이재원 옮김, 『신좌파의 상상력』, 난장, 2009, pp. 50-51.

다. 성경 속의 성소가 사람들을 모으고 유대를 만드는 장소였다면, 현대의 사회적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작은 영토들은 열정의 유희와 의례를 통해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끌어 모으며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생성시킨다.[28]

이 정치적, 혁명적 축제 속에서 신성하고 종교적인 '커뮤니타스(communitas)'[29]가 발생한다. 평등과 자유, 동료애와 동질성이 지배하는 이 순간/장소에서 사람들 간의 유대의 근거는 의식적 계산이 아닌 무의식적이고 심층적인 모종의 감정이다. 푸리에가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에서 '미식철학(gastrosophie)'[30]이라는 표현을 통해 식사의 즐거움을 강조하며 팔랑스테르를 '축제의 사회(société festive)'로 상상했던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 관능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팔랑스테르는 문명에 고유한 열정들의 갈등상태를 조화로운 조합들로 대체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푸리에의 통찰은 현대 사회를 설명하면서 축제와 미학, 에로스를 강조하는 다양한 사상의 조류들로 이어진다.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는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포스트모더니티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간 존재의 감각, 감정 및 비합리적인 다양한 측면을 재평가 할 것을 강조한다. 계몽주의와 사회

---

28) 마페졸리, 신지은 옮김, 『영원한 순간』, 이학사, 2010, pp. 235-236.

29) 사회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사회관계에는 정치적, 법적, 경제적 지위가 구조화된 계급적인 체계가 있지만, 또한 평등한 개인으로 구성된 미조직, 반구조화된 집단의 체계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그는 후자를 가리켜 커뮤니타스라 불렀는데, 주로 축제나 통과의례적 제의에서 커뮤니타스가 관찰된다고 본다(Turner, *The ritual process,* Cornell University Press, 1966).

30) 미식을 가리키는 gastronomie에 지식/학문을 뜻하는 sophie를 결합시켜 만든 미식철학(gastrosophie)은 요리의 즐거움과 건강을 조화롭게 하는 과학, 위와 배의 과학, 위생과 건강에 관한 과학을 뜻한다(Fourier, *Théorie des quatre mouvements et des destinées générales, suivi du Nouveau monde amoureux,* Les presses du réel, 1998, pp. 45-46.).

계약론에서 가정되는 정치적 인간(homo politicus)과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에 대한 강조가 놓쳐버린 미적 인간(homo estheticus), 에로스적 인간(homo eroticus)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인간은 근대성의 기초를 놓은 계몽주의와 그와 연관된 부르주아 혁명 등의 주체를 가리키고, 경제적 인간은 19세기 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이해하는 인간의 모습과 연관된 것이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미학적 인간'에서 '미학적'이라는 그 용어는 분과학문으로서의 '미학'과의 연관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감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31] "감각은 에로스적이고 쾌락원칙의 지배를 받는다."[32] 그러나 이 감각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감각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계약론자들의 주장 이래로 개인을 합리적, 이성적 존재로 가정했던 전통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인간은 감각적이고 미적 존재이며, 또한 동시에 사회적, 집단적, 공동체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르쿠제 역시 미학적 기능의 해방하는 힘을 통해 문명을 다시 형성하고자 했다. 근대 내내 지속된 감각적인 (따라서 신체적인) 인식과정에 대한 억압적 처리 과정 속에서 미학적 인간은 축소되었지만, 포스트모던 사회에 이 미학적 인간, 즐거움과 축제, 열정과 감정, 감각의 우세함에 대한 새로운 주목이 요청되기 시작했다.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끼는 것, 그저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마페졸리가 말하는 '미학적 인간', '에로스적 인간(homo eroticus)'의 특성이다.[33] 여기서는 '감성적 이성(la raison sensible)'이 합리주의적 이성에 앞서고, 집단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개인을 앞서며,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는 도덕보다 디오니소스적 즐거움이 앞선다. 그리고 승화된 문화적(예술적) 형식

31) Maffesoli, *Au creux des apparences,* Paris, Plon, 1990.
32) 마르쿠제, 『에로스와 문명』, p. 225.
33) Maffesoli, *Homo eroticus,* Paris, CNRS Editions, 2012.

에서뿐만 아니라, 탈승화된 정치·실존적 형식에서까지도 자유와 본질적인 친화력을 갖는 미학적 차원은 공동체의 생산력이 된다.[34]

미학적 차원, 문화, 축제, 놀이는 노동/정치와 대립되는 영역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수많은 정치적, 종교적 활동들 속에서도 음악과 미팅, 소란스러운 감정의 폭발과 전염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35] 푸리에의 '열정 인력'을 상기시키는 현대 사회의 '점착성', '전염'은 자기 정체성의 고독 속에 갇혀 있던 개개인들이 서로를 향해 가도록 떠미는 것으로 포스트모더니티 분석의 중요한 개념이 된다.

> 푸리에와 짐멜은 열정 인력(attraction passionnée)을 포스트모더니티의 중요한 범주로 만든다. … '점착성'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상황으로 전염된다.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디오니소스의 상징적 형상이다. "디오니소스의 그림자"는 우리 대도시 속에서 확산되고 있다. 디오니소스의 그림자로부터 축제의 중요성, 자연과 환경의 역능, 외양의 유희, 운명을 강조하는 주기의 회귀, 즉 존재로 하여금 영원한 순간들의 연속이 되게 하는 모든 것이 생겨난다. 사실 다른 위대한 문명들은 그 위에서 형성되었다. … 놀이와 그것의 창조적 차원이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36]

마페졸리가 포스트모던 사회의 축제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푸리에의 '열정 인력' 개념에 기대듯이, 우리는 이 논의를 좁은 의미의 축제적 상황이 아니라, 푸리에가 팔랑스테르를 '축제의 사회'로 가정했던 대로 전(全)사회적 차원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놀이적, 미학적, 감성적 차원에 대한 이런 논의들은 실상 사회의 기반 그 자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사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이론들은 합리적인 개인들이 합리적인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은 데서 사회가 발생한 것으

---

34) 마르쿠제, 「새로운 감수성」, p. 177.
35) Maffesoli, *Homo eroticus,* pp. 234-235.
36) 마페졸리, 『영원한 순간』, pp. 18-19. (필자가 약간 수정했음)

로 간주한다. 그러나 뒤르켐의 종교사회학을 준거로 한 랜들 콜린스는 사실 합리성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사회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훌륭하게 보여준다. 이를 우리는 '사회성의 비합리적 차원'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공공 버스 서비스 무료'라는 이상적인 공공사업의 가능성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보자. 합리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만 있다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공공 버스 서비스 무료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각자에게 최고의 거래는 무임승차자가 되는 것이다. 콜린스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이런 '이상적인' 공공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합리성'에만 의존해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만일 사람들이 이타성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신들이 이 무료 서비스를 만들어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무료 버스 서비스 운영은 가능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실용적인 보상의 객관적 가치보다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느낌'이다. 그래서 콜린스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 보다 심오한 어떤 감정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정치와 시장의 영역에도 적용가능하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여러 당파의 불화와 투쟁이다. 그런데 어떤 파벌(혹은 정당)이든 내부 유대감이 부족하면 결코 다른 파벌(정당)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에서 내부의 유대감은 상당히 중요하다. 정치에서 이념과 상징, 감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각 파벌(정당)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감정의 공유는 필수적이다.[37] 자본주의적 시장도 역시

37) 콜린스, 김승욱 옮김, 『사회학 본능』, 알마, 2014, pp. 32-41, 48.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와 토대는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비합리적 감정(신뢰, 유대, 사회관계)이다. 근대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한 것은 중세 상인들의 의심스러운 흥정과 단발성 거래를 종식시킬 장기 계약이 등장하면서였다. 산업기술의 발달 덕분에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장기 계약 덕분에 대량생산이 실용성을 띨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서로를 의심하면서 장기적인 계약을 맺지 못하던 시기에서 신뢰를 통해 새로운 계약 경제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신뢰의 여지를 만든데 기여한 것 중 중요한 요인은 종교혁명이다. 개신교식의 종교도덕이 정직과 금욕주의를 확산시킨 것이다.[38]

뒤르켐의 유대 이론과 고프먼의 미시적 상호작용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콜린스의 상호작용 의례(interactional ritual) 이론은 '무엇이 사람들을 결합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뒤르켐의 대답, 즉 도덕적 유대를 생산하는 기제가 사회를 결합시킨다는 대답에 덧붙여, 이 기제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정서를 강화시키고, 정서를 전환시킴으로써 도덕적 유대를 생산한다고 주장한다.[39] 사회적 삶의 핵심에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대감'과 '정서적 에너지'를 형성, 증진시키려는 개인들의 노력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재화와 서비스가 유통되는 물질 시장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콜린스는 물질 시장도 상호작용 의례와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리적으로 계산하면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부 혹은 외부의 '유대감'과 '정서적 에너지', '집합적 열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다.

---

38) 같은 책, pp. 42-43.

39) 콜린스, 진수미 옮김, 『사회적 삶의 에너지』, 한울, 2009, p. 151.

"물질적 생산의 동기는 상호작용 의례를 생산할 자원의 필요에서 나온다."[40]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정서적 에너지를 추구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종교와 자본주의 물질 시장의 형성 간의 관계를 밝힌 베버의 주장이 떠오를 것이다. 콜린스는 심지어 마르크스나 엥겔스처럼, 정서적 과정의 이론화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들의 분석에도 정서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그들의 분석에서는 모든 것이 구조적이다(심지어 소외라는 개념조차 마르크스에게는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 관계의 개념이다.) 그렇지만 계급 동원과 계급 갈등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서 정서가 한몫을 할 수밖에 없음도 분명하다. 계급결집을 가로막는 파편화된 계급들의 상호불신이든 아니면 오직 혁명적 상황에서만 이룰 수 있는 지배 계급 또는 피억압 계급의 유대이든 모두 정서가 작용한다. … 따라서 정서의 사회학은 사회학의 핵심적 질문을 품고 있다. 사회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유대의 '접착제'도 갈등을 유발하는 결집된 집단의 에너지도 정서이다.[41]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명예나 권력 역시 단순히 불평등한 물질적·문화적 자원의 결과가 아니다. 누가 더 인상적이고 매력적이며 지배적인 사람이 되는가는 상황에서 상황으로 흘러가는 정서적 에너지에 달려 있다. 사실 푸리에가 간파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을 "결합"시킬 수단, "결집"시킬 수단, "사회적 일치"와 "화합"으로 가는 방법,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산업, '산업 인력(attraction industrielle)', 노동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즉 정서, 열정이 존재하는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그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팔랑스테르, 신세계, 매혹적인 노동 등에 대한 논의의 출

40) 같은 책, p. 225.
41) 같은 책, p. 154.

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42] 성공적인 상호작용 의례가 제공하는 '정서적 에너지'에 따라 개인이 상황에 매혹을 느끼게 되듯이, 푸리에가 생각하는 매혹적인 노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열정에 따라 배치되고 조직되기 때문에 그것이 매력적인 것으로 느끼게 된다. 푸리에의 유토피아 속에서는 사람들이 산업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현대 우리 사회의 축제나 공연, 무도회가 제공하는 즐거움 그 이상이다.[43] 인간 각 개인이 가진 열정에 따라 이끌리는 '열정 인력 법칙'은 마페졸리나 콜린스의 '점착성', '접착제'라는 개념들, 묶다(religare)라는 의미에서의 '종교'에 대한 뒤르켐의 관심 등과 연결되는데, 이는 모두 사회조직의 원리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진지함과 가벼움,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노동과 놀이, 정치와 문화는 사실 그다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정치와 노동 역시 놀이와 문화의 요소로 설명되어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문명이 놀이 속에서(in play), 그리고 놀이로서(as play) 생겨나고 또 발전해 왔다"는 하위징아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놀이에 대한 기존의 공리적 접근들은 놀이가 어떤 것에 봉사하고 생물학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컨대 놀이가 잉여 에너지를 발산시키거나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시켜 준다거나, 혹은 어린이에게 성인이 되어서 감당해야 하는 진지한 작업을 준비시킨다고 보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놀이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피상적으로만 다루는 한계가 있다. 놀이의 재미, 사람들이 열광하고 몰두하는 그 사실을 알고자 한다면, 놀이는 생활의 즉각적인 필요를 초월하며 그 행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

42) 푸리에,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외』, pp. 30-34.
43) Fourier, *Théorie de l'unité universelle*, pp. 295-296.

에 주목해야 한다.[44]

게다가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가 분명하게 호모 라베르와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즉 놀이가 단순히 노동의 진지함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놀이는 보통 종교, 예술, 스포츠 등과 연관되지만, 또한 전쟁, 철학, 법, 과학, 정치 등의 영역과도 연관이 있다. 푸리에의 주장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한 가지는 그가 자신의 열정적 인력과 척력에 관한 이론을 단순히 놀이와 문화, 예술의 측면에 한정시켜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열정 인력을 통해 노동과 사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푸리에의 '매력적인 노동' 개념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감수성'의 정치를 주장했던 마르쿠제에게도 삶을 위한 투쟁은 에로스를 위한 투쟁이며 이것은 곧 정치적 투쟁이었다. 에로스를 위한 투쟁 속에는 자연스럽게 노동과 노동의 소외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5. 결론

마르크스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진보적 의식의 징표라 생각했으며 따라서 푸리에를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45]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유토피아와 인간에 대한 인식이다. 인간적인 것, 감각적인 것들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생산 관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생산의 과정을 창조의 과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

44) 하위징아, 이종인 옮김,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2015, pp. 31-34.

45) 과학적 사회주의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영진, 「샤를 푸리에의 유토피아」, 『현대사상』 5, 대구대 현대사상연구소, 2009 참고.

다. 이것은 자유가 필연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필연성에 의한 원인과 자유에 의한 원인이 합치되는 유토피아를 상기시킨다.

> 자유가 필연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르크스로부터 푸리에로 이행하는 것을, 필연성에 의한 원인과 자유에 의한 원인이 합치되는 것은 현실주의로부터 초현실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46]

새로운 감수성의 원천이자, 총체적 지배의 현실을 자각하고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는 상상력, 즉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력이다. 도구적 이성에 의해 감각과 열정의 경험에 대한 탐구는 무시되었고, 감정/감각의 공동체와 축제적 사회, 상상력의 힘은 억압되어 왔다. 그러나 상상력은 위대한 역사적 혁명 기간에만 해방되어, 새로운 도덕 체계와 자유의 새로운 질서들을 그릴 수 있었다. 그것이 비록 짧고 일시적인 것이라 해도 상상력은 해방의 전망을 열어주며 다른 대안적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1960년대 여성주의자들이나 새로운 급진주의적 이론을 정초하려는 사람들이 푸리에의 사상에 새롭게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열정에 따른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는 때로는 정치적인 힘으로 변모하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접근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여기에는 분명 전염성이 있다. 그 이유는 기존 사회의 분위기와 풍토가 바이러스를 옮겨주기 때문이다.[47] 에로스효과! 이 때 무감각하고 활력을 잃은 노동과 정치는 폐지될 것이다. 다른 언어, 다른 충동, 다른 가치로 무장된 인간, 즉 잔인성과 폭력성, 지루함과 추함에 반대하는 인간에 의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의 구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 아무리 잔인성과 폭력, 추함을 만들어내

---

46) 마르쿠제, 『해방론』, pp. 37-38.
47) 같은 책, p. 38.

는 토양이 되더라도 그 속의 모든 사회적 삶을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추하게 만들 수는 없다. 위에서 살폈듯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정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즐거움과 윤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이 기초가 된 미래를 꿈꾸기보다, "새로운 세계를 바로 여기와 지금, 구세계 한가운데에 세우는 것"이다.[48] 이것이 바로 푸리에의 사유가 갖는 현재성이다.

참고문헌

1. 논문

박주원, 「푸리에의 '팔랑쥬(phalange)', 즐거운 노동사회의 유토피아」, 『이상국가론』, 장동진 외 지음, 한국정치학회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박주원, 「마르크스 사상에서 감성의 정치 혹은 문화정치의 가능성 – 욕구(Bedürfnisse) 개념의 재해석을 통하여」, 『한국정치학회보』 45(5), 한국정치학회, 2011.

박주원, 「19세기 유토피아 사상의 정치철학적 토대 – 푸리에(C. Fourier) 사상에서 열정, 열정의 계열, 열정인력법칙의 개념적 연구 –」, 『시민사회와 NGO』 11(2),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2013.

변기찬,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의 정념 – 조화 혹은 사회성을 향한 욕망」, 『석당논집』 49집, 동아대학교부절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1.

장귀연, 「대안적 노동 원리 –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을 통한 해방」, 『마르크스주의 연구』 12(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2.

하영진, 「샤를 푸리에의 유토피아」, 『현대사상』 5,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09.

Jean-Marc Lachaud, "Du « Grand refus » selon Herbert Marcuse", *Actuel Marx* n° 45,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9/1.

André Lepic, "Charles Fourier", *Culture & Révolution*, 2003. [http://culture.

48) 파코, 조성애 옮김, 『유토피아』, 동문선, 2002, p. 15.

revolution.free.fr/en_question/2003-02-05-Charles_Fourier.html]
Roberto Massari, “Fourier : Eros et Civilisation”, *Cahiers Charles Fourier* n° 14, Association d'études fouriéristes, 2003.
René Schérer, “De Fourier à Pasolini. L'amour ralliant”, *Cahiers Charles Fourier* n° 14, Association d'études fouriéristes, 2003.

2. 단행본

고르, 이현웅 옮김,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생각의 나무, 2011.
리프킨, 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 민음사, 2007.
마르쿠제, 최현 옮김, 「새로운 감수성」, 『미학과 문화』, 범우사, 1999.
마르쿠제, 김택 옮김, 『해방론』, 울력, 2004(1).
마르쿠제, 김인환 옮김, 『에로스와 문명』, 나남, 2004(2).
마르크스, 강유원 옮김, 『경제학-철학 수고』, 이론과 실천, 2006.
마페졸리, 신지은 옮김, 『영원한 순간』, 이학사, 2010.
손철성, 『허버트 마르쿠제』, 살림, 2005.
파코, 조성애 옮김, 『유토피아』, 동문선, 2002.
푸리에, 변기찬 옮김,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외』, 책세상, 2007.
카치아피카스, 이재원 옮김, 『신좌파의 상상력』, 난장, 2009.
콜린스, 진수미 옮김, 『사회적 삶의 에너지』, 한울, 2009.
콜린스, 김승욱 옮김, 『사회학 본능』, 알마, 2014.
하위징아, 이종인 옮김,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2015.

Charles Fourier, *Théorie des quatre mouvements et des destinées générales*, suivi du *Nouveau monde amoureux*, Collection L'écart absolu, Les presses du Réel, 1998.
[http://classiques.uqac.ca/]
Charles Fourier,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étaire*, ou *Invention du procédé d'industrie attrayante et naturelle distribuée en séries passionnées*(1), Sections I, II, III, Paris, Flammarion, Collection Nouvelle bibliothèque romantique, 1973.
[http://classiques.uqac.ca/]
Charles Fourier,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étaire*, ou *Invention du procédé d'industrie attrayante et naturelle distribuée en séries passionnées*(2), Sections IV, V, VI, VII, Paris, Flammarion,

Collection Nouvelle bibliothèque romantique, 1973. [http://classiques.uqac.ca/]
Charles Fourier, *Théorie de l'unité universelle*, Tome1, Paris, Les Presses du Réel, 2001. [http://classiques.uqac.ca/]
Michel Maffesoli, *Au creux des apparences*, Paris, Plon, 1990.
Michel Maffesoli, *Le temps des tribus*, La table ronde, 2000.
Michel Maffesoli, *Homo eroticus* Paris, CNRS Editions, 2012.
Van Parijs et Vanderborght, *L'allocation universelle*, Paris, Ed. La Découverte, 2005.
René Schérer, *L'écosophie de Charles Fourier*, Paris, Anthropologie, 2001.
Patrick Tacussel, *Charles Fourier. Le jeu des passions*, Desclée De Brouwer, 1998.
Patrick Tacussel, *L'imaginarie radical. Les mondes possibles et l'esprit utopique selon Charles Fourier*, Dijon, Les Presses du Réel, 2007.
Victor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 Structure*, Cornell University Press, 1966.

(**투고일**: 2016. 10. 28 **심사완료일**: 2016. 12. 9 **게재확정일**: 2016. 12. 9)

신지은
소속: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214호
전자우편: gracchus@pusan.ac.kr

[Abstract]

On the Relation between Labor and Passions, Politics and Culture in Fourier's Phalanstere

Shin, Ji-Eun

Charles Fourier imagines the construction of a utopian society(Palanstere), and an attack on modern civiliza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poverty and disorder. His famous theory of "attractive labor" is based on the belief that all creative exists in harmony with liberated passions.

During the 1840's, Fourier's ideas were realized in practice by numerous Fourierist Associations, and were developed through the diverse research initiatives undertaken by his followers. In the mid-20th century, his work experienced a resurgence among writers and thinkers, as part or a wider reappraisal of socialist ideas outside the Marxian mainstream.

In our postmodern society, movements looking for alternative social structures have appeared. We cannot understand the emergence of these movements using modern theories of politics and labor. It would be more fruitful to revise Fourier's projet, in mind of an approach that, rather than repressing people's passions, concentrates on organizing individual needs in a way that maximizes the benefits of addressing those desires that humans hold in comm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 Fourier's ideas map onto contemporary questions of politics and labor, and in doing so provide a more appropriat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oday's social movements.

Key words: Fourier, Phalanstere, passional attraction, labor, utopia